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AMCF 선교협력위원회

M S O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2007 영어캠프

캄보디아, 부르키나파소, 앙골라, 파나마

AMCF 중미지역대회

AMCF 태평양지역대회

몽골 방문

ACCTS Staff & Board Meeting 참석

AMCF 세계지도의 날 주님의 보좌에 둘러 모이다

이라크 Sada 장군 MSO 방문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



통권 12호

2007 NO.

4



2007 영어캠프

MSO의 중점사역인 세계 각국의 군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영어캠프 사역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시행되었다.

영어캠프 사역은 여름 휴가기간(7~8월)동안 재미한인교회 성도들(2세 교민)로 하여금 영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현지에서 필요한 여러 사역활동을 병행 실시하여 봉사와 구제와 교육과 친교를 통해 현지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활동이다.

금년에도 중미지역, 아시아에서 실시되었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앙골라에 이어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3개 부대(전년도 2개 부대)로 확대되었다.

사역내용도 영어교실, 의료선교, 태권도선교, 어린이 사역, 컴퓨터교육, 리더십교육, 재봉틀교육, 요리강습 등 다양하게 시행되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으며 참가기관도 캄보디아 마하나임선교센터, 재미 LA군사랑선교회, 매일교회, 워싱턴지구촌교회, 오하나 영어전문교육기관, 국내 백석대학교, 선린병원, 선한이웃병원, 선린대학, 사랑의교회, MSO 등 많은 교회, 단체, 개인들이 참가하였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사역내용들을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진행시

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며 기간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였고 수료 시에 현역장교가 주님 영접 후 삶의 변화에 대한 간증을 하여 은혜 충만한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고 한다. 각 부대의 지휘관들은 내년에도 다시 방문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었다.

이 사역활동에 직접 참가한 많은 분들, 특히 현지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선하신 캄보디아 이재울 선교사 부부와 자녀들, 가정의 큰 환난(아들의 비행기 사고)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주선하신 부르키나파소의 서혜경 선교사 부부, 재미교회 영어캠프 팀, 오하나 파운데이션 팀, 백석대학교회 단기선교 팀, 선린병원 의료선교 팀을 비롯한 모든 분들 그리고 뒤에서 기도도 물질로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LA영락교회는 어렵게 영어캠프 팀을 오지 아프리카 앙골라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Visa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끝내 발급받지 못하여 출국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영어캠프 담당자에 \$3500 지원).

내년에는 반드시 참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준비한 LA영락교회와 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국가별 부대별 사역활동내용

캄보디아 영어캠프

911특수전부대

7. 9~20 어간 오하나 파운데이션 팀(미 캘리포니아주 영어교육전문기관, 7명)은 현지보조교사(5명)와 마하나임선교센터(이재울 목사) 팀(4명)의 협조로 오전에는 어린이 100명, 오후에는 군인 90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였다.

의료사역(7. 9 14:00~17:00)은 선린병원 의료팀(9명)의 주관으로 선한이웃병원(4명), 선린대학(5명), 사랑의교회(7명) 팀이 협력하여 군인 및 군인가족대상으로 160명을 진료하였고, 부대강당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시작한 어린이사역은 마을의 가정들을 순회하면서까지 찬양, 율동, 선물, 간식을 제공하였다.



11공수여단사령부

7. 30~8. 9 어간 백석대교회 팀(17명)은 MSO(2명), 마하나임선교센터(10명) 팀과 협력하여 영어캠프, 컴퓨터교실(30명), 어린이교실(74명 찬양, 율동, 인형극), 주부교실(30명 자장면 등 음식 만들기) 시간을 가졌으며 군인영어교실에서는 부대장을 비롯하여 69명의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의료 진료사역(7.5목)은 선린병원(9), 선한이웃병원(4), 선린대학, 사랑의교회, 마하나임센터 팀이 협력하여 군인과 군인가족 380명과 지역주민 50명을 진료하였다.

통상 영어캠프사역은 재미 한인교회가 주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금번 11공수여단에서는 국내 팀이 주관하는 최초의 사역이었다.



기갑사령부

8. 6(월)~10(금) 1주간 LA 군사랑선교회(지도목사 Paul New)는 영어캠프 팀장인 이신모 장로 등 11명이 작년에 이어 금년도 기갑사령부에서 마하나임선교센터 요원(5명), 통역요원(6명)과 함께 부대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군인들과 군인가족 어린이 150명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어린이학교를 개설하였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어린이들에게 티셔츠, 모자 제공 및 수료증 수여 등)와 작년의 경험을 살려 은혜롭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가한 장교들이 복음성가를 힘차게 불렀으며 한 장교는 주님 영접후의 삶의 변화에 대한 간증을 하였고 순수한 어린이들의 찬양과 율동은 많은 감동을 가져왔다.



국가별 부대별 사역활동내용



군 윤리 리더십

이갑진 장로(MSO 교육국장)가 7. 16(월) 911특전 부대에서, 8. 8(수) 11공수여단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 리더십 강의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했다. 기간 중 현병 총사령관 Sokha Sao 중장을 비롯한 여러 현역, 예비역 장군들을 만나 아름다운 친교와 당면한 여러 사항들에 대한 폭 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부르키나파소

7. 30(월)~8. 10(금) 2주간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보보 디올라소지역 사령부(부르키나파소 서부지역)에서 워싱턴지구총교회 오기환 장로를 비롯한 영어캠프 팀(5명)과 서해경 선교사가 군인 120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개회식에 경찰, 산림군인, 소방서 등 고급간부들과 교육생들이 참석하였고 바로 Class별 수업이 시작되었으며 영어 2개반(30명), 컴퓨터 1개반(15명), 태권도 1개반(75명), 미싱 1개반(40명)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매 수업시간 전에 기도와 성경낭독이 있었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였다고 한다.

MSO에서는 서해경 선교사의 요청에 의거 재봉틀교육을 위해서 150만원(미싱구입비 10대분 120만원, 재료 및 봉사비 30만원)을 미리 송금하여 준비케 하였다.



앙골라

7. 23(월)~31(화) 1주간 앙골라 남부지역 사령부(루방고)에서 전 앙골라 주재 미국무관 부인 Sara Sparrow의 주관으로 현지 동료와 함께 영어캠프를 실시하였다.

LA 영락교회 영어캠프 팀(5명)은 미국 주재 앙골라 대사관으로부터 VISA를 발급 받지 못하여 앙골라 영어캠프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파나마

8. 13(월)~16(목) 4일간 뉴저지 성산교회(주선영 목사) 영어캠프 팀 8명이 파나마시 경찰간부 18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실시하였고 피교육자들에게 마침 지역대회에 참석 중이었던 AMCF 회장(이필섭 장로)이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2007 캄보디아 영어캠프를 마치고

MSO 부위원장 겸 교육국장 이갑진 장로



2007년 캄보디아의 3개 군 부대에 영어캠프를 허락해 주시고 잘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2005년 7월 우동지역 제 1여단에서 시작된 캄보디아 하계 영어캠프가 이제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시행할 부대, 주관할 기관과 교회를 찾는 과정에서 해마다 새로운 도전이 생기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

금년에도 백석대학교회가 국내교회로는 처음으로 한 부대에서 영어, 컴퓨터, 어린이교실 모든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주관하였다. 부대장이 영어캠프의 학생으로 수강하였고, 전 장교들이 모두 열심히 참가하였다. 특히 컴퓨터를 배우려는 열기는 매우 높았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영어 전문교육기관인 오하나 파운데이션이 911부대를 처음으로 전담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시청각교육 자료를 활용,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5명의 교사들로 어린이교실(오전)과 장교들의 영어캠프(오후)를 모두 주관, 힘든 2주를 감당하였다. LA군사랑선교회는 기갑사령부에 2년째 사역하면서 현지부대와 더욱 돈독한 교제와 신뢰를 구축하고, 사역의 열매들도 직접 확인하는 기쁨을 누렸다.



선린병원 의료봉사 팀은 선한이웃병원, 사랑의교회와 협력사역하여 11여단, 911부대에서 의료 진료와 함께 일일 어린이 교실을 열었다. 3년차의 리더십교육도 교재를 만들어 실시하였다. 현지 선교사님과 스태프들이 보조 교사, 차량운전, 사진편집, 식사 및 간식준비 등 온갖 일을 감당하는 등, 모두가 귀하고 값진 일들을 감당하였다. 아이들 줄 쿠키와 학용품, 선물 등을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수개의 가방으로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입일 초록, 빨강, 하늘색의 티셔츠와 모자를 준비해 왔으며, 밤을 새워가며 선생님들은 개인수료증에 학생의 이름을 쓰고 사진을 부쳤다.

처음 실시한 부대에서도 옥토에 잘 뿌려진 변화된 씨앗들을, 두 번째 실시한 부대에서는 작년에 뿌린 씨앗이 맺은 열매를, 인터뷰 때 입에서 술 냄새 풍기던 장교들이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며 함께 춤추었고,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어린이들은 주기도문을 외었다. 티셔츠를 정성스레 포장하여 수료식 후 담임선생에게 선물하는 반도 있었다. 불과 일주일의 변화들이다. 좋아했던 술과 도박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간증하는 장교, 아이들을 소 물러 다니는 일시키지 않고 이제는 영어공부 계속 시키겠다는 장교도 있었다. 3년째 만나는 야전부대의 어느 장군은 내 손을 꼭 잡고 십년지기를 만나는 것처럼 반가워하였다. 학생들과의 헤어짐이 아쉬워 돌아서며 눈물 흘리는 교사들도 있었다.

육사를 나와 대령이 되기까지 제복 속에서만 살아온 이재을 선교사의 맨발은 샌들과 먼지에 찌든 캄보디아 노동자의 발이 될지 이미 오래다. 사모인 박병진 선교사는 사진으로만 보면 그 모습과 옷차림이 현지인과 구분이 안 된다. 모두가 하나님의 종 된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다. 이번사역을 통하여 씨를 뿌리는 자와 물을 주는 자와 거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영어캠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음을 믿고 '07 영어캠프를 주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AMCF 중미 지역대회



AMCF 회장인 이필섭 장로는 8. 11(토)~8. 31(금) 어간 중미(파나마)와 미국(워싱턴, 뉴욕)을 방문하였다. 기간 중 파나마에서 개최된 AMCF 중미지역대회와 인터액션(8. 16~22)에 참가하여 대회선언, 호산나교회(성도 6000여명)주일설교, AMCF Vision 설명, 북미지역 AMCF 부회장의 교체행사 주관(미국의 Dees 장군(예)에서 그라나다의 Nestor Ogilvie 중령(예))과 인터액션 격려사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했다. 중미지역대회는 9개국(멕시코 2, 과테말라 6, 코스타리카 6, 파나마 53, 도미니카 공화국 34, 미국 12, 한국 15(영어캠프 팀 포함), 그레나다 2, 볼리비아 3), 133명이 참석하여 "주의 일에 힘쓰자"(고전 15:58)라는 주제로 라틴아메리카인들 특유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축제대회였다고 한다.

대회에 이어 실시된 인터액션은 각국 MCF 지도자들에게 Manual을 비롯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소개하여 MCF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았으며 특히 Pointman Leadership에 대해 8시간의 강의와 실습은 지도자들의 영적훈련과 지도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장로는 귀국길에 미국의 워싱턴, 뉴욕지역을 방문하여 여러 교회와 선교기관 (PGM, KIMMET 등), 각종 세미나, MCF 월례회, 방송국 등에 초청 및 방문(8. 23~29)하여 세계 군선교 사역에 대한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AMCF Vision과 영어캠프 프사역내용을 설명하여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하고 귀국하였다.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SO에서는 이 대회를 위해서 \$10,000(주선영 목사가 보내준 목적헌금의 일부)을 후원하였다. 지면을 통하여 주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AMCF 회장
(이필섭 장로)
동정



- 7. 16(월) 11:00 서울여전도연합회(통합측)
임원기도회(국군중앙교회 기드온 성전) 시
세계 군선교 소개
- 9. 9(주일) 19:30 대천 대동장로교회 본당(전종서 목사담임)
간증설교
- 9. 14(금) 20:00~21:00 KMCF Interaction
육·해·공군본부교회 MCF 회원 및 준회원 대상
(육·해·공군본부교회 교육관) AMCF 소개 및 특강
- 10. 7(주일) 15:00 정윤교회 대예배(하남성전 본당) 시 간증설교



AMCF 태평양 지역대회



9. 20~9. 23 어간 호주 브리스베인 Queensland Conference and Camping Center에서 11개국 63명(호주 34, 뉴질랜드 3, 통가 2, 미국 3, 파푸아뉴기니 5, 팔라우 2, 한국 5 (43: 개회식만 참석), 미크로네시아 2, 바누아투 2, 영국 1, 동티모르 4)이 참석하여 AMCF 태평양지역대회와 태평양지역 인터액션(9. 23~9. 26, 9개국 28명)이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 AMCF 회장인 이필섭 장로 부부, MSO 태평양지역 팀장인 최영관 장로, KVMCF에서는 회장인 정인균 장로를 비롯한 43명(개회식만 참석)이 참석하였고 이 장로는 AMCF 회장으로서는 개회인사와 AMCF Vision을 설명하였다.



이 대회에 참석한 모두는 예수 안에 하나 된 기쁨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겠다는 열정을 재확인하였다. 아직 MCF가 없는 3개국(동티모르, 미크로네시아, 팔라우)의 대표들은 3개국 모두가 성경공부와 기도회 모임을 시작하고 MCF를 설립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 MCF가 없이 대회에 참석한 나라들이 MCF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임무가 분담(미국 ACCTS: 미크로네시아, 한국 MSO: 팔라우, 호주 MCF: 동티모르)되었다. 태평양권역은 호주를 포함해서 크고 작은 15개의 섬나라들로서 많은 나라에 MCF가 설립되지 않는 취약지역(9개국,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쿡 군도, 솔로몬 군도, 키리바시, 마셜 군도, 나우루, 사모아, 투발루)이며 상호 왕래가 어렵고, 주최국인 호주 MCF 활동도 연약하여 대회 개최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AMCF 회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한국과 현지 한인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여 MSO는 MCF 미설립국(3개국 동티모르,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대표 6명)의 항공료와 체제비 \$8850을, 현지 한인교회에서 \$3000을, 회의에 참석한 KVMCF 회원들이 모금한 \$4000을 후원하였다.



현지 한인교회의 협력을 위해서 이상진 목사(브리스베인 은누리교회), 박세명 장로, 고넬로 이병찬 장로의 수고가 지대하였으며 한국북방선교회(회장 김승렬 장로)와 자운대교회(신용백 담임목사)는 MCF 미설립국에서 참가하는 1개국 대표자들의 항공료(350만원)를 MSO에 보내왔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MSO 위원장 (이준 장로) 몽골 방문



9. 1(토)~5(수) 어간 이준 장로(MSO 위원장 겸 IACD이사장)는 아시아 문화 및 개발기구(IACD)가 몽골 울란바트르 시에 설립한 밝은 미래학교(청소년 교육기관)의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몽골 MCF와 한인 선교사들이 설립한 대학교를 방문하였다.



몽골 MCF(회장 Gantumur) 회원들은 이 장로에게 그들의 선교현황을 설명한 후(9. 4(화) 14:00) 여러 선교현장들을 안내, 방문케 하였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몽골 MCF의 역동적인 사역활동과 심지어 중국선교의 꿈을 꾸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선교동반자로 급성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한인선교사가 설립한 울란바트르대학교(총장 운순재 목사)의 신입생 500명에게 Leadership에 대한 특강(9. 4(화) 11:00)으로 격려하였고 후레기술대학교(총장 김영권 박사)를 방문하여 환담하는 시간도 가졌다.



MSO 위원장 (이준 장로) 동정

- 7. 25(수), 30(월) 15사단(38, 39, 50포병) 연대 전 장병대상 안보특별강연
- 8. 5(주일) 14:00 대구 수성노회 남전도회연합회(대구동성교회) 간증설교
- 8. 8(수) 14:40 대한예수교장로수련회(경주교육문화회관) 안보강연
- 9. 16(주일) 19:00 중·고등학생포함 전교인전도대상자 초청집회(천안한빛 감리교회 백충관 목사담임) 간증설교
- 9. 20(목) 11:00~15:00 27사단(77, 78연대) 전 장병대상 안보특별강연



ACCTS Staff, Board Meeting 참석

MSO 사무총장 김영덕 장로



9. 6(목)~20(목)어간 김영덕 장로(사무총장), 허성화 목사(선교실장)는 ACCTS Staff, Board Meeting 참석과 한인교회 집회 인도차 미국을 방문하였다.



ACCTS Meeting에는 ACCTS Staff들, 새로 지명된 북미 부회장 그라나다 Ogilvie 부부, Accts MMI Mike Paterson(Office Manager), Ukraine MCF 회장 Vassily Khimich, Africa 짐바브웨 Laza 부부, MSO 사무총장 부부 등이 참석하였다.



ACCTS Meeting(9. 10~15, 메릴랜드선교센터)에서 각 staff들은 1년간의 사역활동을 개인별로 보고하면서 중요안건에 대한 활발한 토의와 함께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회의였다. MSO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07. 3~9월 간 사역내용의 중요사항을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ACCTS Board Meeting(9. 14~15, Baltimore 콜롬비아장로교회)에서는 AMCF 기도의 날 행사, ACCTS의 예산 결산과 2008 예산승인, 새로운 staff의 승인, 중요정책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허 목사는 한인교회(9. 6~9, 덴버) 집회에서 말씀으로 많은 한인성도들을 위로, 격려하였고 세계 군선교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세계 군선교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한편 ACCTS Staff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군선교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반면에 여러 어려움(예산획득, 인적충원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MSO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렸다.

AMCF 세계 기도의 날 (9월 15일) 주님의 보좌에 둘러 모이다.

1년의 하루를 정하여 모든 AMCF 회원들이 세계 군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날로 지킨다. 금년에는 9월 15일(토)을 AMCF 기도의 날로 지정되어 MSO는 07:00~08:00 어간 국군중앙교회 기도성전에서 전 임원과 세계 군선교에 관심있는 성도들이 모여 금식하면서 세계 군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배운규 장로(국내실장)의 시화로 흥석훈 목사(국군중앙교회 담임)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회개, 감사 기도 후 지역별 통성기도를 하였다. 사전에 준비한 121개국의 AMCF 회원 국가 기도요청서의 중요내용과 84개국 MCF 설립을 위해서, 그리고 AMCF 회장단, ACCTS, Accts MMI, MSO 등 기타 협력기관들의 협력역할활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1930년에 채택된 AMCF 기도문(“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으로 '07 AMCF 세계기도의 날 행사를 은혜가운데 마쳤다.

MCF 미설립국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AMCF 국가 회원들은 미설립 각 국가의 MCF 설립을 위해 매일 정오(12:00)에 기도 중에 있다)

- | | | | |
|-------------------|---|----------------|---|
| 동북유럽 11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아이슬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터키 | 동아프리카 6 | 콩고 민주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세이셸, 소말리아, 탄자니아 |
| 중남유럽 17 | 안도라, 보스니아, 코소보,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아일랜드 오브 맨,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산 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 남아시아 3 | 아프가니스탄, 부탄, 몰디브 |
| 불어권 아프리카 5 |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니제르, 세네갈 | 동남아시아 3 | 동티모르, 브루나이, 베트남 |
| 시아프리카 4 | 가뽤베르데, 적도 기네, 감비아, 기니 비사우 | 동아시아 4 | 중국, 북한,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 남아프리카 4 | 코모로, 레소토, 나미비아, 짐바브웨 | 태평양 9 | 쿠크 군도, 키리바시, 마셜 군도, 미크로네시아, Нау루, 팔라우, 사모아, 솔로몬군도, 투발루 |
| | | 중동 18 |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예멘 |



MSO 방문

▶ 이라크 Sada 장군



9. 13(목) 11:00에 한국고신교단 초청으로 방한 중에 있는 이라크의 전 공군 부사령관 Sada중장(예)(2004 WC 참가) 외 4명이 MSO 사무실을 방문하여 AMCF/MSO 소개와 이라크 군

선교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 후 회장, 위원장, 임원들과 함께 오찬(육군회관)을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LA영락교회 임형천 목사

9. 11(화) 19:30 임형천 목사(LA영락교회 당회장)는 한국 방문길에 부친 되신 임인식 목사(노량진교회 원로목사)와 함께 MSO를 방문하여 세계 군선교에 대한 현황을 소개받고 앙골라 영어캠프 등 여러 협조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 ACCTS Staff Jim Greshel 부부

9. 28(금) 10:00 태평양지역대회(9. 20~26)참가 후 귀국길에 한국을 방

문하여 28일 고넬로 조찬기도회 참석한 후에 AMCF Reference Manual 수정부분 영문 및 한국어 Version 수집을 위하여 MSO를 방문하였다.



▶ 3기 KMCF 인터액션

KMCF에서는 9. 14(금)~15(토) 어간 계룡대지역(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 61명(육군 34명, 해군 13명, 공군 14명)을 대상으로 제 3기 인터액션 Korea를 실시하였다.



▶ 미국 Interaction RMH 참가

미국 Interaction Rocky Mountain High가 7. 21~8. 15 어간 콜로라도주 Spring Cannon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KMCF 대표로 ROTC 후보생 김광인, 유창우 생도가 참가하여 세계 초급간부들과의 친밀한 교제와 leadership 함양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07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후원금을 납부하신 분들입니다.

영수증을 대신하여 후원내용을 본 란에 실습니다.

땀 흘리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하는 MSO를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 후원자 ◆개인 (1천) 한영덕 (2천) 김권두 (5천) 김유민 김용진 김경자 김태균 김태용 박민주 박신한 박현정 방홍남, 예혜태, 우항영, 윤준식, 이장자, 임이선, 전현우, 전호철, 조순녀, 최용희, 최재호, 최점숙, 최종섭, 허홍범 (1만) 강고은, 강갑수, 강신애, 강양순, 강철석, 강진숙, 고광남, 고정자, 고정희, 고창석, 박창길, 박태용, 구성순, 구자윤, 구청서, 권순일, 김경란, 김경미, 김국진, 김권희, 김규남, 김금자, 김기래, 김남순, 김덕수, 김병현, 김시용, 김선옥, 김수미, 김수연, 김애선, 김영설, 김영아, 김영영, 김영이, 김영환, 김용만, 김은영, 김을필, 김재문(김정애), 김정희, 김중현, 김진걸, 김진석, 김진숙, 김진영, 김찬수, 김준도, 김홍숙, 김태식, 김희영, 김현희, 김희배, 김희선, 남기하, 남수미, 남희우, 노병설, 노효석, 두은순, 문명숙, 민승미, 민찬기, 박경진, 박두양, 박래철, 박범중, 박수정, 박여생, 박연홍, 박용숙, 박재영, 박종범, 박중순, 박한우, 박한근, 박현영, 배기훈, 배영희, 박승현, 변유리, 변현수, 복청현, 서관식, 서명숙, 서영이, 서재식, 서정기, 성윤정, 손태중, 송기현, 신경숙, 신미숙(6월), 신성명, 신신애, 안윤숙, 안정실, 양광선, 양태봉, 양향권(6~7월), 염옥선, 오용섭, 유우만, 유경식, 유오준, 유재혁, 윤병국, 윤석희, 윤여정, 윤재선, 윤종섭, 윤지영, 윤현철, 이경원, 이계호, 이기갑, 이기찬, 이동수, 이병재, 이복순, 이상근, 이상달, 이상현, 이선희, 이성희, 이성우, 이성연, 이소영(5~7월), 이수호, 이숙경, 이순자, 이숙옥, 이승우, 이영준, 이윤문, 이윤우, 이은규, 이재민, 이재남, 이재철, 이재일, 이정각, 이정우, 이종근, 이종선, 이종환, 이찬우, 이창민, 임리라, 임일순, 임호실, 장경옥, 장 봉, 장호근, 전성동, 전승일, 전영선, 전영숙, 전용현, 전일재, 전재범, 정기정, 정대우, 정미연, 정민우, 정성태, 정운식, 정종철, 정경훈, 조섭문, 조승연, 조연식, 조영민, 조종도, 조원일, 조주목, 조준기(6~7월), 조하나(5~6월), 조한일(5~6월), 주영수, 지태환, 진미정, 차상철, 차진애, 채어진, 채형욱, 최기대, 최수용, 최영철, 최영희, 최재경, 최정희, 최종철, 최지훈, 하철수, 한관수, 한연희, 한용현, 한현진, 한현철, 허 옥, 허정자, 현지연, 홍미경, 황경자, 황구연, 황동규, 황춘자, 황호남 (2만) 강덕동, 공영란, 권병주, 권인도, 권오성, 권중원, 김경태, 김준석, 김기학, 김우용, 김병욱, 김사목, 김영규, 김종필, 김진옥, 김한식, 노신자, 박권희, 박승준, 박영재(6~7월), 박우주, 박인철, 박종민, 박종원, 박한두, 배태중, 복기승(진명희), 손은자, 손정문, 송고성, 여광조, 유진혁, 윤은수, 윤재관, 이경선, 이대근, 이대일, 이명나, 이숙현, 이원규, 이원목, 이아규, 이찬희, 임영민, 전태열, 전현경, 정광섭, 정기소, 정남기, 정문희, 정병호, 정원용, 정의용, 차동길, 최선일(김현실), 최영관, 한희화, 허성희, 황옥정 (3만) 권오용, 김기범, 김덕중, 김윤영, 김왕구, 김기라, 박현진, 배윤규, 오세민, 이필설, 장문식, 장혜경, 정원호, 정재연, 조영호, 지명숙, 이두철, 홍규애, 홍성표 (5만) 김동선, 김시호, 김영덕, 김위식, 김종득, 남궁환, 안주실, 안주홍, 유근중, 윤여일, 이갑진, 양만재, 임성민, 최기우, 황성훈 (10만) 맹청신, 이계삼, 장길명, 장성현, 장영진, 황성목(6~7월)

◆교회 및 기타 (5만) 대일교회 (10만) 고천성결교회, 국방대학교회, 남원교회, 노량진교회, 다니엘교회, 무열대교회, 서울여전도선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원중앙성결교회, 수정교회, 예수사랑교회, 정원교회, 흥통교회 (15만) 예심교회 (20만) 은혜교회, 일원동교회, 흥신교회, 해군중앙교회 (50만) 육군본부교회

◆특별헌금 (5만) 오신기 (6만) 박순숙 (10만) 이수호 (12만) 봉신제일교회(제남전도회) (15만) 정병대 (18만) 배현주, 최영관 (20만) 김은순 (30만) 최지은 (100만) 이갑진, 이재규 (1,000만) 정의숙 (5200) 벨리하나라교회 (\$200) 엘비안델리문교회 (\$400) 나성열린문교회 (\$400) 흥천선교회 (\$600) 동양선교회, LA 매일교회

8월 후원자 ◆개인 (1천) 한영덕 (2천) 김권두 (5천) 김유민 김용진 김경자 김태균 김태용 박민주 박신한 박현정 방홍남, 예혜태, 우항영, 윤준식, 이장자, 임이선, 전현우, 전호철, 조순녀, 최용희, 최재호, 최점숙, 최종섭, 허홍범 (1만) 강고은, 강갑수, 강신애, 강양순, 강철석, 강진숙, 고광남, 고정자, 고정희, 고창석, 박창길, 박태용, 구성순, 구자윤, 구청서, 권순일, 김경란, 김경미, 김국진, 김권희, 김규남, 김금자, 김기래, 김남순, 김덕수, 김병현, 김시용, 김선옥, 김수미, 김수연, 김애선, 김영설, 김영아, 김영영, 김영이, 김영환, 김용만, 김은영, 김을필, 김재문(김정애), 김정희, 김중현, 김진걸, 김진석, 김진숙, 김진영, 김찬수, 김준도, 김홍숙, 김태식, 김희영, 김현희, 김희배, 김희선, 남기하, 남수미, 남희우, 노병설, 노효석, 두은순, 문명숙, 민승미, 민찬기, 박경진, 박두양, 박래철, 박범중, 박수정, 박여생, 박연홍, 박용숙, 박재영, 박종범, 박중순, 박한우, 박한근, 박현영, 배기훈, 배영희, 박승현, 변유리, 복청현, 서관식, 서명숙, 서영이, 서재식, 서정기, 성윤정, 손태중, 송기현, 신경숙, 신미숙(6월), 신성명, 신신애, 신종덕, 안문숙(8~9월), 안정실, 양광선, 양태봉, 양향권, 염옥선, 오용섭, 유경식, 유영희, 유오준, 유재혁, 윤병국, 윤석희, 윤여정, 윤재선, 윤종섭, 윤지영, 윤현철, 이경원, 이계호, 이기갑, 이기찬, 이동수, 이병재, 이복순, 이상근, 이상달, 이상현, 이선희, 이성희, 이성우, 이성연, 이성희, 이소영, 이숙경, 이순자, 이숙옥, 이승우, 이영준, 이윤문, 이윤우, 이은규, 이재민, 이재남, 이재철, 이재일, 이정각, 이정우, 이종근, 이종선, 이종환, 이찬우, 이창민, 임리라, 임일순, 임호실, 장경옥, 장 봉, 장호근, 전성동, 전승일, 전영선, 전영숙, 전용현, 전일재, 전재범, 정기정, 정대우, 정미연, 정민우, 정성태, 정운식, 정종철, 정경훈, 조섭문, 조성희, 조승연, 조연식, 조영민, 조종도, 조원일, 조주목, 조창자, 조준기, 조하나, 조한일, 주영수, 지태환, 진미정, 차상철, 차진애, 채어진, 채형욱, 최기대, 최수용, 최영철, 최영희, 최재경, 최정희, 최종철, 최지훈, 하철수, 한관수, 한연희, 한용현, 한현진, 한현철, 허 옥, 허정자, 현지연, 홍미경, 황경자, 황구연, 황동규, 황춘자, 황호남 (2만) 강덕동, 공영란, 권병주, 권인도, 권오성, 권중원, 김경태, 김준석, 김기학, 김우용, 김병욱, 김사목, 김영규, 김종필, 김진옥, 김한식, 노신자, 박권희, 박승준, 박영재, 박우주, 박인철, 박종민, 박종원, 박한두, 배태중, 복기승(진명희), 손은자, 손정문, 송고성, 여광조, 유진혁, 윤은수, 윤재관, 이경선, 이대근, 이대일, 이명나, 이숙현, 이순일, 이원규, 이원목, 이아규, 이찬희, 임영민, 전태열, 전현경, 정광섭, 정기소, 정남기, 정문희, 정병호, 정원용, 정의용, 차동길, 최선일(김현실), 최영관, 한희화, 허성희, 황옥정 (3만) 권오용, 김기범, 김덕중, 김윤영, 김왕구, 김기라, 박현진, 배윤규, 오세민, 이필설, 장문식, 장혜경, 정원호, 정재연, 조영호, 지명숙, 이두철, 홍규애, 홍성표 (5만) 김동선, 김시호, 김영덕, 김위식, 김종득, 남궁환, 안주실, 안주홍, 유근중, 윤여일, 이갑진, 임만재, 임성민, 최기우, 황성훈 (10만) 맹청신, 이계삼, 장길명, 장성현, 장영진, 황성목(6~7월)

◆교회 및 기타 (5만) 대일교회 (10만) 고천성결교회, 국방대학교회, 남원교회, 노량진교회, 다니엘교회, 무열대교회, 서울여전도선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원중앙성결교회, 수정교회, 예수사랑교회, 정원교회, 흥통교회 (15만) 예심교회 (20만) 은혜교회, 일원동교회, 흥신교회, 해군중앙교회 (50만) 육군본부교회

◆특별헌금 (5만) 오신기 (6만) 박순숙 (10만) 이수호 (12만) 봉신제일교회(제남전도회) (15만) 정병대 (18만) 배현주, 최영관 (20만) 김은순 (30만) 최지은 (100만) 이갑진, 이재규 (1,000만) 정의숙 (5200) 벨리하나라교회 (\$200) 엘비안델리문교회 (\$400) 나성열린문교회 (\$400) 흥천선교회 (\$600) 동양선교회, LA 매일교회

황동규, 황재홍, 황춘자, 황호남 (2만) 강덕동, 공영란, 권병주, 권인도, 권오성, 권중원(7~8월), 김경태, 김준석, 김기학, 김우용, 김병욱, 김사목, 김영규, 김종필, 김진옥, 김한식, 노신자, 박권희, 박승준, 박영재, 박우주, 박인철, 박종민, 박종원, 박한두, 배태중, 복기승(진명희), 손은자, 손정문, 송고성, 여광조, 유진혁, 윤은수, 윤재관, 이경선, 이대근, 이대일, 이명나, 이숙현, 이순일, 이원규, 이원목, 이아규, 이찬희, 임영민, 전태열, 전현경, 정광섭, 정기소, 정남기(7~8월), 정문희, 정병호, 정원용, 정의용, 차동길, 최선일(김현실), 최영관, 한희화, 허성희, 황옥정 (3만) 권오용, 김기범, 김덕중, 김윤영, 김왕구, 김기라, 박현진, 배윤규, 오세민, 이필설, 장문식, 장혜경, 정원호, 정재연, 조영호, 지명숙, 이두철, 홍규애, 홍성표 (5만) 김동선, 김시호, 김영덕, 김위식, 김종득, 남궁환, 안주실, 안주홍, 유근중, 윤여일, 이갑진, 임만재, 임성민, 최기우, 황성훈 (10만) 맹청신, 이계삼, 장길명, 장성현, 장영진, 황성목(6~7월)

◆교회 및 기타 (5만) 대일교회 (10만) 고천성결교회, 국방대학교회, 남원교회, 노량진교회, 다니엘교회, 무열대교회, 서울여전도선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원중앙성결교회, 수정교회, 예수사랑교회, 정원교회, 흥통교회, 흥통교회 (15만) 예심교회 (20만) 세광교회(7~8월), 은혜교회, 일원동교회, 흥신교회, 해군중앙교회 (50만) 육군본부교회

◆특별헌금 (1만) 김영수 (6만) 이주경 (14만) 배현주 (15만) 권오성, 김덕중, 박재현, 박창문 (20만) 이준, 황인규 (25만) 최지은 (60만) 이갑진 (100만) 박용옥, 이진수 (500만) 한국여비여가독권인회(KVMCF) (\$100) 벨리하나라교회, 엘비안델리문교회 (\$200) 나성열린문교회, 흥천선교회 (\$300) 동양선교회

9월 후원자 ◆개인 (1천) 한영덕 (2천) 김권두 (5천) 김유민 김용진 김경자 김태균 김태용 박민주 박신한 박현정 방홍남, 예혜태, 우항영, 윤준식, 이장자, 임이선, 전현우, 전호철, 조순녀, 최용희, 최재호, 최점숙, 최종섭, 허홍범 (1만) 강고은, 강갑수, 강신애, 강양순, 강철석, 강진숙, 고광남, 고정자, 고정희, 고창석, 박창길, 박태용, 구성순, 구자윤, 구청서, 권순일, 권태연, 김경란, 김경미, 김광민, 김국진, 김권희, 김규남, 김금자, 김기래, 김남순, 김덕수, 김병현, 김시용, 김선옥, 김수미, 김수연, 김애선, 김영설, 김영아, 김영영, 김영이, 김영환, 김용만, 김은영, 김을필, 김재문(김정애), 김정희, 김중현, 김진걸, 김진석, 김진숙, 김진영, 김찬수, 김준도, 김홍숙, 김태식, 김희영, 김현희, 김희배, 김희선, 남기하(8~9월), 남수미, 남희우, 노병설, 노병섭, 노효석, 두은순, 문명숙, 민승미, 민찬기, 박경진, 박두양, 박래철, 박범중, 박수정, 박여생, 박연홍, 박용숙, 박재영, 박종범, 박중순, 박한우, 박한근, 박현영, 배기훈, 배영희, 배용모, 박승현, 박희선, 변유리, 복청현, 서관식, 서명숙, 서영이, 서재식, 서정기(8월), 성윤정, 손태중, 송기현, 신경숙, 신미숙(8~9월), 신성명, 신신애, 신종덕, 안문숙(8~9월), 안정실, 양광선, 양태봉, 양향권, 염옥선, 오용섭, 유경식, 유영희, 유오준, 유재혁, 윤병국, 윤석희, 윤여정, 윤재선, 윤종섭, 윤지영, 윤현철, 이경원, 이계호, 이기갑, 이기찬, 이동수, 이병재, 이복순, 이상근, 이상달, 이상현, 이선희, 이성희, 이성우, 이성연, 이성희, 이소영, 이숙경, 이순자, 이숙옥, 이승우, 이영준, 이윤문, 이윤우, 이은규, 이윤우(8~9월), 이은규, 이민희(8~9월), 이재민, 이재남, 이재철, 이재일, 이정각, 이정우, 이종근, 이종선, 이종환, 이찬우, 이창민, 임리라, 임일순, 임호실, 장경옥, 장 봉, 장정애, 장호근, 전성동, 전승일, 전영선, 전영숙, 전용현, 전일재, 전재범, 정기정, 정대우, 정미연, 정민우, 정성태, 정운식, 정종철, 정경훈, 조섭문, 조성희, 조승연, 조연식, 조영민, 조종도, 조원일, 조주목, 조창자, 조준기, 조하나, 조한일, 주영수, 지태환, 진미정, 차상철, 차진애, 채어진, 채형욱, 최기대, 최수용, 최영철, 최영희, 최재경, 최정희, 최종철, 최지훈, 하철수, 한관수, 한연희, 한용현, 한현진, 한현철, 허 옥, 허정자, 현지연, 홍미경, 황경자, 황구연, 황동규, 황춘자, 황호남 (2만) 강덕동, 공영란, 권병주, 권인도, 권오성, 권중원, 김경태, 김준석, 김기학, 김우용, 김병욱, 김사목, 김영규, 김종필, 김진옥, 김한식, 노신자, 박권희, 박승준, 박영재, 박우주, 박인철, 박종민, 박종원, 박한두, 배태중, 복기승(진명희), 손은자, 손정문, 송고성, 여광조, 유진혁, 윤은수, 윤재관, 이경선, 이대근, 이대일, 이명나, 이숙현, 이순일, 이원규, 이원목, 이아규, 이찬희, 임영민, 전태열, 전현경, 정광섭, 정기소, 정남기, 정문희, 정병호, 정원용, 정의용, 차동길, 최선일(김현실), 최영관, 한희화, 허성희, 황옥정 (3만) 권오용, 김기범, 김덕중, 김윤영, 김왕구, 김기라, 박현진, 배윤규, 오세민, 이필설, 장문식, 장혜경, 정원호, 정재연, 조영호, 지명숙, 이두철, 홍규애, 홍성표 (5만) 김동선, 김시호, 김영덕, 김위식, 김종득, 남궁환, 안주실, 안주홍, 유근중, 윤여일, 이갑진, 임만재, 임성민, 최기우, 황성훈 (10만) 맹청신, 이계삼, 장길명, 장성현, 장영진, 황성목(6~7월)

◆교회 및 기타 (5만) 대일교회 (10만) 고천성결교회, 국방대학교회, 남원교회, 노량진교회, 다니엘교회, 무열대교회, 서울여전도선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원중앙성결교회, 수정교회, 예수사랑교회, 정원교회, 흥통교회 (15만) 예심교회 (20만) 은혜교회, 일원동교회, 흥신교회, 해군중앙교회 (50만) 육군본부교회

◆특별헌금 10만) 강양순 (123천원) 무명 (15만) 김사목, 장성길 (20만) 권인도, 배현주, 이종희 (40만) 최지은 (1백만) 할렙루아교회 (350만) 북방선교회, 자문교회 (3,802,102원) KVMCF (1천만원) 김승남

* 영수증을 대신하여 후원내용을 본 란에 실습니다. 착오나 문의사항이 있거나 별도의 영수증 또는 본회 CMS용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요.

MSO후원 출금 이체 신청서(CMS)

회 원 명			핸드폰
전 화 번 호	자택		
주 소			
*은 행 명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예 금 주	*주민(사업자)번호		
*계 좌 번 호	*월 후원금		
*출 금 일 자	매월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2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5년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 임

- ◆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배윤규)
 - 국민은행 477401-01-079703 · 우리은행 1002-629-510072 · 농협 094-12-149224 · 우체국 010025-02-233906
- ◆ 지로입금: 지로번호 7672266 MSO (AMCF선교협력위원회)
- ◆ 문의전화: 일반) 02-795-6225, 797-6763 / 군) 900-4091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

조나단 에드워즈(1703-1758)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13세에 예일대학에 입학하여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미국 교회가 낳은 최고의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철학자인 18세기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다. 선조의 유산을 지켜내고 그 유산의 갱신을 추구했던 그는 종교 열광주의를 경계하면서도 당대의 이성주의자들에 맞섰던 그의 체계와 함께 그의 깨어 있는 설교활동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대 부흥 운동이 가능했을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크게 쓰임 받았던 신앙인물 그가 청년시절 청교도의 영향 속에서 자라며 결심한 내용들이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70 가지 결심문 중에서 ...

- 나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 점점 무감각해져서 이 결심문 중의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한 유익하게 사용하자.
-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말자.
- 모든 면에서, 즉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무도 나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는 것처럼,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범한 것처럼 행동하자.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나 자신의 잘못을 살피는 계기로 삼고, 나의 죄와 비참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회로만 삼자.
-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다수 간 다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 내가 최고로 헌신한 상태일 때, 그리고 내가 복음과 천국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살자.
-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가운데 내가 판단하거나 생각하기에 경멸받을 만한 행동이나 비열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
- 내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발견하면 버리자.
- 성경을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깨닫고, 쉽게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 지난주보다 신앙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매주 노력하자.
-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진실만을 말 하자.
- 절대로 합법성에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일을 하지 말자. 동시에 그런 일을 하고 난 후에는 그 일이 합법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조사하자. 또한 만일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일도 마찬가지다.
- 매일, 매주, 매달, 매해의 마지막에 어떤 면에서 더 낮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 보자.
-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양 행동하지 말고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인 양 행동하자. 토요일에 깨달은 것과 일치하게 행동하자.
-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닌 신앙만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동하지 말자.
- 약점이든지 죄이든지 간에 내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솔직히 고백하자. 만일 그것이 신앙에 관련된 것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필요한 도움을 간구하자.
-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 것들을 항상 행하도록 하자.
-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우) 140-600 서울 용산구 용산동 용산우체국 사서함 9호
 국군중앙교회 4층 MSO (AMCF 선교협력위원회)
 ☎ 02-795-6225, 797-6763 / 748-4091 팩스 02-797-6764
 Email: mso2004@paran.com http://mso.or.kr

- 발행일: 2007년 10월 10일
- 발행인: 이 준 · 편집주간: 허성화
- 발행처: MSO(AMCF 선교협력위원회)